

최근 출판계 동향과 전망 한국출판계 “구름많고 비 잦음” 내년 “sns와 출판마케팅의 접목 현실화될 듯”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도서관과 출판계의 상호발전과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태 교수(세명대학교)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표정훈 출판평론가의 ‘최근 우리 출판계 동향과 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박철완 교수의 ‘납본제도 현황과 발전’, 최성구 출판유통진흥원 기획팀장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 운영 활성화: 전자출판물, 정기간행물 ISBN 부여 중심으로’, 오혜영 국가서지정보센터추진단 사무관의 ‘출판시도서목록(CIP)제도 운영 현황과 신청안내’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표정훈 출판평론가가 발표한 ‘최근 우리 출판계 동향과 전망’ 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정리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2010년 발행부수 1억630만 9626부

납본도서 기준으로 교과서와 정기간행물 등을 제외한 2010년 신간 발행종수는 4만291종, 발행부수는 1억630만9626부였다. 전년대비 각각 4.5% 감소, 0.1% 증가한 수치다. 신간을 납본한 출판사는 2623개사(등록출판사의 약 7.5%)로 이 가운데 5종 이하를 발행한 곳이 1369개사(52.1%)였다.

이러한 수치를 2009년과 비교하면 신간 납본 출판사는 2009년 2902개사에서 279개사가 줄었고, 5종 이하 발행 출판사도 2009년 1530개사에서 161개사가 줄었다. 신간 발행종수도 감소추세가 이어졌다.

구분	신간 발행 총수				신간 초판발행 부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점유율	2010년	2011년	증감률	점유율
총류	292	360	23.3	1.93%	506,645	633,988	25.1	1.32%
철학	418	474	13.4	2.54%	684,924	969,958	41.6	2.02%
종교	786	813	3.4	4.36%	1,514,713	1,697,631	12.1	3.53%
사회과학	2,889	2,773	-4.0	14.89%	4,900,688	4,356,019	-11.1	9.06%
순수과학	290	340	17.2	1.83%	368,962	436,563	18.3	0.91%
기술과학	1,610	1,856	15.3	9.96%	2,124,440	2,369,782	11.5	4.93%
예술	545	595	9.2	3.19%	876,209	901,858	2.9	1.87%
어학	706	667	-5.5	3.58%	2,041,101	1,413,417	-30.8	2.94%
문학	3,460	3,504	1.3	18.81%	7,209,695	7,014,348	-2.7	14.58%
역사	454	414	-8.8	2.22%	829,945	825,540	-0.5	1.72%
학습참고	1,431	1,044	-27.0	5.60%	13,045,826	8,927,962	-31.6	18.56%
아동	3,302	3,654	10.7	19.61%	12,591,853	14,715,049	16.9	30.59%
계	16,183	16,494	1.9		46,695,001	44,262,115	-5.2	
만화	2,027	2,135	5.3	11.46%	4,539,424	3,844,030	-15.3	7.99%
총계	18,210	18,629	2.3	100.00%	51,234,425	48,106,145	-6.1	100.00%

구분	평균 부수			평균 정가			평균 면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2010년	2011년	증감률	2010년	2011년	증감률
총류	1,735	1,761	1.5	18,106	18,845	4.1	376	389	3.6
철학	1,639	2,046	24.9	16,733	16,402	-2.0	342	351	2.8
종교	1,927	2,088	8.4	13,409	14,744	10.0	341	361	5.7
사회과학	1,696	1,571	-7.4	19,711	20,267	2.8	414	417	0.8
순수과학	1,272	1,284	0.9	20,460	21,032	2.8	387	383	-1.1
기술과학	1,320	1,277	-3.2	22,571	22,828	1.1	414	418	1.0
예술	1,608	1,516	-5.7	19,814	20,527	3.6	272	292	7.4
어학	2,891	2,119	-26.7	13,369	16,649	24.5	274	292	6.4
문학	2,084	2,002	-3.9	10,208	10,552	3.4	308	313	1.6
역사	1,828	1,994	9.1	17,405	19,279	10.8	337	390	15.6
학습참고	9,117	8,552	-6.2	9,727	10,026	3.1	224	221	-1.1
아동	3,813	4,027	5.6	9,489	9,771	3.0	111	102	-8.3
계	2,885	2,684	-7.0	14,259	14,957	4.9	293	297	1.2
만화	2,239	1,800	-19.6	4,331	4,576	5.7	169	162	-3.9
총계	2,814	2,582	-8.2	13,154	13,768	4.7	279	281	0.7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안의 여파

이러한 몇몇 감소추세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2008년에 몰아닥친 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의 여파가 이후로도 출판계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2008년 신간 발행부수는 2007년 대비 19.6%나 감소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출판시장 상황 사이의 상관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에 비롯된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기조가 2012년은 물론 향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출판 수요와 출판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깊이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2010~11년 들어와 경제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펄프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에서 2010년 연초부터 봄까지 짧은 기간에만 종이값이 전년 대비 15% 가까이 오르고, 품목에 따라서는 품귀현상까지 벌어졌다.

이후로도 종이가격 상승과 그 여파가 이어졌다.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종이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책값에 반영시키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출판계는 그야말로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구름 많고 비 잦은 올 출판계

출판계에 드러운 구름과 내리는 비는 반드시 전체적인 경제상황 때문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2000년대 들어와 급변해 온 매체 환경에 우리 출판계가 성공적으로 적응해왔거나 또는 극복해 왔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최근 우리가 처한 매체 환경은 전근대 1:1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근대 1:n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가장 최근에는 n:n 상황으로 누적적으로 변화 발전해왔다. 1:n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매체는 TV, 라디오, 책 등이며, n:n 상황은 최근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출판은 더 이상 전통적인 도서출판에 머무르지 않고 블로그,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발신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매체 종이책의 가치에 우위를 두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상대적 우월성 또는 장점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첫째, 온라인상의 자료들 대다수는 파편화되어 있다.

둘째,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대다수는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3차원의 물건이라는 책의 물질적, 형태적 조건, 책의 물성은 2차적 화면이라는 조건에 비해 우월하다.

넷째, 독서는 두뇌는 물론 온 몸과 온 마음을 동원한 고도로 복합적인 행위지만 모바일 디지털 기기 조작과 활용은 그렇지 못하다.

다섯째, 눈의 피로도 문제를 포함한 가독성에서 아직까지는 책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물론 외부 매체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전부는 아니다. 출판계 내부의 문제점들도 작지 않다. 21세기의 첫 10년을 보낸 출판계가 날로 새로워지는 매체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무한 할인경쟁이라는 말까지 낡은 과도한 할인경쟁을 비롯한 출판계 내부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2012년을 비롯한 향후 출판계와 출판인들의 노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출판관련 제도측면 이슈

도서할인 무한경쟁과 현행 도서정가제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구간 무제한 할인, 발행후 18개월 미만 신간은 사실상 19% 할인이 가능하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정가의 10% 직접할인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경품 고시에 따라 10%까지 경품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배경으로 도서할인 무한 경쟁이 펼쳐졌다. 예컨대 신간, 구간을 묶어 할인하면서 구간은 수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치열한 할인경쟁속에 중소서점업계의 고사위기가 높아졌고, 출판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출판계 양극화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10% 할인율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품까지 포함하여 최대 10% 할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2010년 초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아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나타난 개정의 이유 가운데 도서정가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할인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할인방

법에 직접 가격할인 이외에 이용실적점수 및 할인권 제공 등 종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에서 규정한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함.

한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에서 도서정가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의2 (할인방법 등)

① 법 제22조 제2항의 단서의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은 간행물 정가의 직접 가격할인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및 상품권
2.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간행물의 판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판계의 입장과 대응

현행 제도에 힘입어 급성장해 온 인터넷 서점업계는 19% 할인가능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출판계와 서점업계는 개정안 지지 입장이다. 2010년 2월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경영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9개 출판 및 서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반대하고 개정안 원안대로 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정부는 도서정가제 법령(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라.
-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서정가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한편 도서정가제 관련 입법예고 원안대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책은 가격경쟁상품이 아니라 가치상품이다.
- 도서정가제는 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다.
- 도서정가제가 무력화된다면 할인경쟁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어려운 중소서점, 지방서점, 동네서점들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독서의 저변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종합적인 출판진흥기구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된다. 재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디지털 출판육성, 출판문화산업 외국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와 유통선진화,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맡아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종합 사령탑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간행물 심의 기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별도로 두게 되는 간행물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그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설립 취지와 목표대로 빠른 시간안에 정착되어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인가, 민간부문인 출판계의 이해와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조직과 인적구성을 구체적으로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출판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출판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관계와 역할정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다음호에계속〉